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자존감(self-esteem)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형편없다는 존재로 자신을 항상 무시하며

삼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대로 사십니까? 자존감이 없거나 무너진 사람은 불행하며, 대부분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그것에 따라 건강한 자존감과 병든 자존감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근거가 나 자신, 곧 나의 외모, 학벌, 성공, 능력, 소유, 업적 등에 있다면, 나의 자존감은 병든 것입니다. 그런 자존감은 나를 교만과 착각 속에 살게 하며 언젠가 헛것으로 초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렘 9:23).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존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첫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 있습니다(창1:26-27).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사라질 나의 외모, 능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둘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스스로 천한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전락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존귀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 없는 학문과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왔고 혁명과 권력에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며 외모를 가꾸고 성형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학벌이 없어도, 외모가 못 생겨도, 삶이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가난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한종수 목사
(얼바인침례교회)



본 비유는 실제 결혼식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들러리로 뿔뿔히 뿔뿔한 사람들이다. 신랑이 어디 오므로 다 졸며 잠든 사이, 밤중에 신랑이 왔다. 열 처녀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슬기롭다는 것은 현명하고 분별이 있거나 또는 지혜가 있다는 의미이다. 신랑이 오기까지는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슬기로운지 알 수 없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하나님 나라의 도레가 등불을 든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와 같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완전히 나누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인격적인 선택이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열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등만 가지고 있을 뿐 기름을 준비하지 못

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열정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특강할 때 특히 스탈린의 도레를 전제해 현재를 조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목표가 분명하면 현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이 바로 나온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콘돌리자 라이스를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흑인목사의 딸이었다. 대학교 2학년까지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어떤 계기로 피아노가 자기의 적성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조지프 코벨이었다. 그가 소련에 대해 특강할 때 특히 스탈린

기름을 준비하라.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Be Ready!' 항상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때와 시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한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전혀 심판에 대비하지 않았다. 베드로 사도 역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는 것이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 하고 기뻐하는 견고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인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 기름, 그릇, 의복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주의에 매인 모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진심으로 회개한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회개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였다. 현실에서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한다. 천국은 미리 준비한 자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진정한 신자의 증거이다. 기름은 성령의 인치심을 뜻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만이 부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명목신자와 불신자는 제 2차 부활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최후심판의 대상이 된다(계20:12-15). 예수님의 비유설교는 오늘날도 선포되고 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7:10). 에스라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설교를 연구하고 준행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13절)

신앙의 형식 '등불' 본문에서 말하는 등불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즉,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뜻한다. 등, 불, 기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학벌, 외모, 직장, 큰 집, 비싼 차 등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 신앙생활의 겉모습보다 예수님과 형성된 일대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겉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에 대해 강의를 듣는 순간 그녀의 심금을 울리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녀의 새로운 전공분야를 결정하게 되었다. 1987년 스포츠 대학 만찬 석상에서 브랜트 스카우 쿠레브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그녀를 소개해주었다. 그래서 콘돌리자는 국무장관이 된 것이다. 남들은 그녀에게 운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직은 그녀의 눈물과 피나는 노력의 준비 끝에 만난 기회였다. 제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마음속에 두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절로 준비하게 된다. 종말론적 신앙 미래학(Futurology)과 종말론(Eschatology)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에 대한 충격'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언급했다. 미래학은 시작이 과거에서 출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에 대한 진단을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왔다는 근거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이다. 이에 반해 종말론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니..."라고 말한다. 우리도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날을 소망할 때 주님과 함께 들림 받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해 한번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하며 복수나 질투 없이 하나님 앞에 거러짐 없는 삶을 다짐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신앙예수가 오신다 해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저야 할 십자가를 겸손히 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날을 준비하게 되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년 가을학기 영성수련회에서 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복음의 질그릇으로 사명 감당하라”

국제개혁대신대원 2013가을학기 개강 및 영성수련회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박사) 2013 가을학기 개강 및 영성수련회가 “사명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개최했다.

4:7-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영민 목사는 “우리 앞에 곤고한 일과 믿음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기뻐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다.”

이 같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다. 세상에 얼마나 큰 불행이 일어나고 사는 자일지라도 복음이 들어오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엄 목사는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메신저로 보배를 짊어짐을 받았다. 주의 종이며 질그릇 같은 자들”이라 강조하며 “우리들이 질그릇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타산지적으로 삼고 우리들의 삶에서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결단하여 남은인생 하나님의 복음의 질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첫째 날 집회는 전태준 목사(L.A.중앙노회장)의 기도, 양수철 목사(분교 이사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엄영민 목사가 ‘사역자의 영성관리’(고후6:1-10), 장학금 전담식, 분교 이사 이정현 목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조철원 KAPC 전 총회장이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Seeds Of Worship 소년소녀 찬양 동동팀

Seeds of Worship 2013 뮤지컬 정기공연 ‘THE NEXT POP STAR’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Seeds of Worship(SOW)소년소녀 찬양동동팀이 2013년도 하반기를 맞아 3년 째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하나님나라 내일의 주역들인 2세를 주축으로 구성된 SOW소년소녀 찬양동동팀이 지난 16일 감사한인

교회를 시작으로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THE NEXT POP STAR’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계적인 K-POP 스타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만든 소년소녀 기독교뮤지컬이



RS. 팜파마일에서 하나님말씀을 전하는 선교팀들

홀리스에서 단기선교사로 발을 내딛다

월드쉐어, 새생명교회선교팀과 멕시코 단기선교

할렐루야멕시코 선교팀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6박7일간 멕시코 Ensenada에서 남쪽으로 3시간 떨어진 San Quintin에서 김영옥 선교사(남가주새생명교회 파송)와 함께 태권도 선교사역과 교회사역, 그리고 태권도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역을 진행했다.

할렐루야멕시코 선교팀이 다른 선교팀과 다른 것은, 그동안 다운타운 스키드로 거리에서 생활했던 사논과 알리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가주새생명교회(담임 박형준 목사)는 2012년 겨울부터 매일 두번째 주일 오후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월드쉐어 홀리스 센터를

방문해 홀리스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면서, 홀리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번 여름에 떠나게 될 멕시코 선교에 이들과 함께 가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왔다.

지난 5월에 멕시코 선교에 대해 광고를 한 후에 10여명의 홀리스들이 선교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비자와 여권 등의 문제로 많은 이들이 포기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사논(형제)과 알리나(자매)만 이번 미션에 참여 할 수가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팀들은 태권도 선교센터의 기초공사와 VBS, 영어교육, 심방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멕시코의 황량한 모래밭판위에 판자 집처럼 세워진 3칸의 초등학교에 있다. 사논은 “이 황량한 벌판위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세워져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이를 위해 자신의 홀리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못다 한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포부를 말하기도 했다.

월드쉐어의 김희기 팀장은 “수많은 홀리스들이 다양한 기술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향을 하고 있다. 이번 남가주새생명교회와 같이, 해외 선교프로그램에 홀리스들을 참여시키도록 돕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들에게는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속의 그들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쉐어는 이제 멕시코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홀리스들과 함께 놀이터를 설치하는 겨울미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실 분들은 전화 (213)435-3489(김희기)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쉐어)

금상 뉴저지갈보리교회 김주애 양 차지

필라기독교방송 청소년 복음송 경연대회 성료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국(사장 전영현 목사)이 개국 17주년 기념으로 제11회 청소년 복음송 경연대회(대회장 서장석 운영이사장)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켈트렘장로교회(담임 최정권 목사)에서 열린 대회는 청소년들의 복음송의 활성화를 위한 연중행사다.

이번 행사에 이날 조준 전도사와 서순진 사회로 빛과소금교회에서 준비한 오프닝 동영상에 이어 김성철 목사(필라목사회 회장)의 기도, 대회장 서장석 장로(운영이사장)의 대회 선언에 이어 박해란 집사(영생장로교회 임마누엘 지휘자)의 4명 심사위원 소개 후 경연대회가 이어졌다.

총 8교회가 출연, 각자의 기량을 발휘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

다. 특히 비비비 그룹과 데이브박의 특별 찬양으로 청소년들의 열기를 돋우었다. 심사평에 이어 오성환 준비위원장(운영이사)의 광고 후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 김주애(뉴저지갈보리교회) △은상: 뉴저지행진교회 밴드팀 △동상: 김한나, 김민이(몽고메리장로교회) △인기상: 김원(에베서시티연합교회). 이어서 인기상, 사랑상, 믿음상, 소망상, 평화상, 은혜상, 기쁨상으로 8명 모두에게 트로피가 수여됐다.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국은 “복음의 향배 생명의 소리”라는 가치에 방송선교를 하고 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국)

A large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various churches in the New York, New Jersey, and surrounding areas. Each cell contains the church name, pastor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동부교계 기사판



꿈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버지니아에 있는 꿈과사랑의교회(KAPC 소속)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본 교단 인정 미국내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면목회 5년 이상 경험(담임, 부목)이 있으며 취업에 걸림사유가 없어야 한다...

퀸즈장로교회 무료 열린 유아원 개원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 열린 유아원 가을 학기가 9월 12일(목) 오전 10시 등 교회 유아부실에서 개원한다. 대상은 만 2(8월말)-4세이며 선착순 50명.

NY GPS 미니스트리 컨퍼런스

NY GPS 미니스트리 컨퍼런스가 9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플라싱 금강산 식당, 지하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정원(petitions)에 대한 재조명을 위한 연구발표"와 "국제기도공동체(Global Prayer Society=GPSministry)의 미래와 전망"이며...

1일 집중 역기능 가정치유 세미나

1일 집중 역기능 가정치유 세미나가 메릴랜드 가족성장상담센터(소장 오광복 목사) 주최로 9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메릴랜드 엘크릿지 소재 가족성장상담센터에서 열린다. 세미나 내용은 역기능 가정의 치유와 자존감의 치유, 수치심과 두려움의 치유, 역기능성인 치유와 완전주의 치유, 고통스러운 기억과 과거의 치유, 자기용납과 타인용납 및 축복의 삶 등. 신청마감은 8월 31일이며 전화신청 후 당일 등록하면 된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회 "후원자의 밤" 11월10일 선한목자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22일 8월 월례회를 갖고 텍스공제 및 11월 후원자의 밤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회의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임병남 목사 개회기도 후 진행됐다. 이날 11월 10일(주)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개최될 후원자의 밤에는 후원자들에게 기아대책의 사역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 더 많은 아동결연과 후원 성과를 얻기 위한 동영상 등을 상영하기로 했다. 또 본 기구 홍보대사인 찬양가수들을 초청하며 만찬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속히 결성하고 활성화 하기로 논의했다.

이종명 목사는 사도행전 9장 36-43절을 본문으로 이조시대 거상 김만덕의 구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웃에 구제와 봉사를 한 도르가(다비다)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의 소식은 전 읍바에 퍼져서 많은 복음이 전파됐다"며 "병들 정도로 실전적 사랑을 행한 도르가는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헌신한 도르가처럼 형편과 처지만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베푸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빵과 복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후원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연방정부, 주정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남미 지역 선교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북한까지 후원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다민족선교대회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지역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한다

뉴욕한인장로연합회 뉴욕다민족선교대회 성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KEAGNY, 회장 이보춘 장로)가 주최하는 대뉴욕 다민족선교대회(축제가)가 25일 오후 6시 후러심세일교회에서 열렸다(본보 제1447호 7면 참조).



뉴욕들기쁨교회 선교센터 건립후원을 위한 음악회에서 조이플심포니밴드가 연주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선교센터건립 후원음악회 뉴욕들기쁨교회, 조이플심포니밴드 1회 정기연주회

뉴욕들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주최한 엘살바도르 선교센터 건립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지난 25일 저녁 퀸즈칼리지 레푸카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본보 제1447호 7면 참조). 조이플심포니밴드의 1회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린 음악회는 김홍석 목사의 축사 후 노엘 소사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됐다. 베토벤의 "Ode to Joy" 서곡, 에메이징 그레이스, 아름다운 구세주 "A Chorale Prelude", 대니보이(트럼펫 김철호), 사운드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스타워즈/레이더스 마치(마치 메들리) 연주 후 휴식시간이 있었다.

다(아리랑)를 연주하고, 메시아 중 "The Trumpet Shall Sound"(마리톤 양군식), 거룩한 성(소프라노 박진원), 축복하노라(박진원, 양군식, 김하나, 김은정-피아노),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을 연주했다. 대부분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조이플 심포니 밴드(지휘 장길, 대장 이종식)는 이날 절반의 프로 연주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으며 2곡의 앙콜을 받기도 했다. 김홍석 목사는 "선교를 목적으로 개최한 음악회가 성황을 이루 감사하다"며 "이 땅에 주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렁차고 생동감 넘치는 단원 모두의 희생적인 수고를 통해 선교의 거룩한 도전과 또한 믿음의 힘찬 전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보춘 장로는 "본 회의 목적이 장로들의 신앙성숙과 자질 향상, 상호 친목과 선교 및 구제활동에 적극 참여해 교계의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함"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문화 선교운동을 펼쳐 소외된 여러 민족을 구제하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유혹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온성대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예일찬양팀의 찬양과경배, 김명신 장로의 기도, 이주의 장로의 성경봉독, 뉴욕장로성가대의 찬양, 설교 김중훈 뉴욕교협회장("모든 족속을 향하여", 마28:18-28), 봉헌기도 김희복 목사, 헌금송 새소망합창단, 축사 피터구 뉴욕시의원,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찬양축제는 김영호 장로(교회의 사회로 첫 찬양은 Rivalry Church Choir가 스페니쉬 찬양곡 "Marcos Witt Encien de Una"와 "Somos Pueblo"를 불러 찬양축제의 막을 올렸다. 이어서 Anchor House Worship Team, 예일장로교회 중창단, Greater Miracles Ministry, 뉴욕일일복음교회 찬양팀, 이종창(인정현, 이배준), 결단의 시간 한진영 선교사, 뉴욕관사선교합창단, 인사 및 광고 정권식 장로, 합동찬양, 축복기도장동일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찬양은 각 나라의 언어로 불렀으며 3부 만찬에는 참석자들과 타민족들이 함께 했다. 뉴욕장로연합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8시 장로연합회 사무실(35-14 파슨스 블러바드)에서 정기 기도회를 갖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선한목자교회 이전기념 간증집회에서 최영대 장로가 간증하고 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 선한목자교회 이전기념 최영대 장로 간증집회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가 지난 25일 저녁 새에배당 이전 기념 대축제로 신앙간증 집회를 개최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단의 찬양과 사랑의 원탁단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다룬 DVD 영상을 상영한 후 대회장도 정태관 장로, 간증자 소개 황영진 목사, 특송 한문섭 테너 배영란 소프라노, 간증, 결단의 시간, 축도 황영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최영대 장로에 대해 "한국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조카이자 부친은 전쟁고아를 돌보며 평생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3대째 순교의 믿음을 지켜온 집안의 후손"이라고 소개했다. 최영대 장로는 1978년 부모님과 함께 '영신로얄젤리'를 설립했으며 1988년 미국부를 설립, 대표로 있으며 1990년 성경체현 후 간증집회 가 마련한 로얄젤리와 십자가 벽걸이가,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생애가 담겨있는 CD가 선물로 제공됐다. 최 장로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하기에 앞서 암울하게 기

우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며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양봉업자로 벌을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다가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세계단일정부, 프리메이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 장로는 "이들이 주도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지구상의 먹거리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태이고 씨만 뿌리면 여러 해 동안 자라던 옥수수는 살충제로 무장된 일년생 식물로 변질되고, 그 옥수수는 이제 씨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 장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직접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며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피상적인 믿음은 시간낭비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사탄의 절대적인 선전포고가 시작됐고, 주님은 곧 오신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Table with 3 columns: Item, Price, and Quantity/Details. Items include 돌출(표지), 전면칼라, 전면촉백, etc.

Form for listing information with fields for church name, address, phone, fax, and email.

*의뢰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임승진 담임목사위임 및 송정명 원로목사추대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함께 열려

미주평안교회 제4대 임승진 목사 위임 및 송정명 목사 원로목사 추대 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임승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그 동안 미주평안교회를 섬기셨던 송정명 목사님의 인품, 신학, 비전, 그리고 지도력을 존경하며 원로목사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버지와 스승님처럼 섬기고 싶다"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송정명 목사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 치유, 구제, 선교이다. 이 사역들을 향상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또한 미주평안교회 성도들과 달려가고 위대한 하나님나라를 꿈꾸겠다. 성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타셨던 나귀새끼처럼 주께서 쓰시게 감사"



미주평안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된 송정명 목사(사진 왼쪽)와 4대 담임목사로 위임된 임승진 목사

리며 예수님만 앞장서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구주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이날 위임예배는 김영수 목사(신수동

성결교회) 기도, 연합찬양대의 찬양, 손인식 목사(베델한국교회)가 '이러한 기쁨'(요3:28-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집례자가 위임사약을 한 후, 위임목사를 위해 안수기도의 시간을 갖고 임 목사가 본 교회 4대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가 권면을, 차광일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축사를 했으며, 위임기념패 및 기념품 증정, 그리고 취임사가 있었다.

임승진 목사는 성결대학교 신학대와 서울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은혜실업인선교회 전문인 무료상담 행사에서 이경희 변호사가 오바마 이민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안은 모두에게 혜택" 은혜실업인선교회, 법률/이민법/건보개혁안 등 무료상담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이동양 장로)가 주최한 전문인 무료상담 행사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바마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강의를 한 이경희 변호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있다"고 말하며 "공화당의 입장은 국경을 강화해 밀입국에 대해 철저히 봉쇄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경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가 의문"이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하원에서 아직 어떤 안건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9월 중순쯤 하원이 속개된다. 그래서 현재 이민자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이민법개정은 공화당의 입장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바마 이민법 개혁안이 불법체류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민법 개혁안은 불체자들뿐만 아

나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자들을 위해서도 마련된 법안"이라 설명하고 "이민개혁법안은 가족에게 할당됐던 부분 중 일정부분이 취업 이민자들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해마다 14만개의 취업이민쿼터가 영주권신청자의 경우 그 가족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개혁법안에는 영주권신청자만 카운트가 된다. 또한 이 공계열 석, 박사들을 비롯한 우수인력과 주재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4만개의 취업이민쿼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는 새로운 이민법이 언제 통과가 되는지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새 법안이 발효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류 등 준비를 잘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상담행사는 이원석 변호사가 '법률', 조신천 집사(조선천보통제정 대표)가 '오바마 건보보험', 오하이다 권사(조이에스크로 매니저)가 '에스크로'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사이어티 제57차 소망정기교육세미나 UCI, UCLA 시신기증 담당관 강의

소망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제57차 정기 교육세미나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나성동선교회(담임 한기홍 감독)에서 열렸다.

이날 시신기증에 대해 마크 부룩스 UC얼바인(UCI) 시신기증 프로그램 사무국장과 트레비스 시엔스 UCLA 시신기증 프로그램 디렉터가 강사로 나서 기증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마크 부룩스 사무국장은 "시신기증은 기부문화의 모중중 하나이다. UCI는 2011년도에 시신 174구를 기부 받았다. 그중 67%가 본인이 미리 기증신청을 한 것이며 33%는 가족들이 한 것이다. 시신기증은 본인이 기증해도 되고 가족들이 기증해도 된다"고 말했다.

부룩스 사무국장은 "시신기증은 만18세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UCI에 기증된 시신 중 75%는 수술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24%는 학생들의 해부학 공부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1%는 B형간염과 C형간염 그리고 에이즈 등에 걸린 시신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화장하고 바다에 뿌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룩스 사무국장은 "시신기증자 중 아시아인은 5년

졸업하고 85년 예수교성결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맥매스터 대학원을 나와 오랄로버츠 대학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가족사항으로는 부인 임혜옥 사모와 수미, 선미 두 자녀가 있다.

한편 이날 송정명 원로목사 추대식도 함께 열렸다. 추대식은 임승진 목사의 집례로 열렸으며,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회 대표)가 격려사, 유백열 장로(본 교회 원로)가 회고사를 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의 꽃다발 증정과 에드워드 비다우리(LA 카운티 정신건강국)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선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열린 송정명 목사의 회고록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기념 감사음악회는 노형건 선교사의 진행으로 시작, 전정례 권사(글로벌메시아시아연합장단 단장)의 헌정사, 민종기 목사(총현선교회)의 독후감 발표, 월드미션중앙단과 프레이즈밴드의 중창, 미주평안교회 연합찬양대의 합창,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노형건 선교사 독창, 글로벌메시아시아연합장단의 합창, 그리고 송정명 목사의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든 순서는 임승진 목사(동양선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YC 제23기 합창단 모집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OCYC 단장 노성혜)이 제23기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OCYC는 지난 23년간 한인 2세들에게 선교 뮤지컬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심어왔다.

▲문의: (323)936-2567

새찬양교회 이준수 목사 간증과 찬양집회

새찬양교회(담임 변윤선 목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준수 목사(남가주말일선교단 사역자) 간증과 찬양집회를 9월 8일(주) 오전 11시에 갖는다. 이날 집회는 찬양사역자 마가렛이 자매가 함께 출연한다.

▲문의: (714)826-0100, 944-9377



갯스비전교회, 사우스베이사람의교회, 사랑나눔교회, 소리엘교회 등 4개 교회연합 청소년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주제 4개 교회 연합 제2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갯스비전교회(담임 임금민 목사), 사우스베이사람의교회(담임 고통화 목사), 사랑나눔교회(담임 박선호 목사), 소리엘교회(담임 박두현 목사) 등 4개의 교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소망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다니엘 뉴만 목사(아주사피서대학교 한국어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를 강사로 청소년들이 서로 연합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동성애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규모가 적어 학생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연합을 통한 학생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사제공: 갯스비전교회)



소망사이어티의 제57차 정기교육세미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미주 합동 총회 인준

미주 총회 대학교 · 신학대학원 학생모집

학교소개

1. 본교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이어가는 본교는 1976년에 미정부에 인가와 BPPE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신학대학교입니다.
2. 본 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합동 총회 인준 신학교이며 총회 강도사교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교 총장님은 설립 제 1회(1979년) 졸업생을 배출한 본 교의 역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 타교단 출신 목사님은 본 교에서 특별 교육 후 편목이 가능합니다.
5. 신입생, 편입생 받습니다.
6.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입학 서류

- ◆ 제출서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앙 고백서, 사진 2매
- ◆ 개강일시: 2013년 9월 9일(월)저녁 7시
- ◆ 개강예배: 본교 예배실

모집학과

학위과정	수업년한	졸업학점	지원자격
신학사(B.Th)	4년	120	고등학교 졸업
기독교 교육학 석사(M.Edu)	2년	63	4년제 대학졸업
목회학과(M.Div)	3년	96	4년제 대학졸업
신학석사(Th.M)	2년	32	M.Div 졸업자
목회학 박사	2년	32	M.Div 졸업자

- 여성 목회학과(2년제): 고졸이상 세례교인
- 평신도 신학과(2년제):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는 세례교인

Chong Hoe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in USA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22-3913/ (213)595-3912(24시간) FAX (213)386-2890

총장 정고영 박사

동성에 특대위 구성 총력대응 나섰다

국회-국가조찬기도회·의회선교연합 등 교계 5단체

국회조찬기도회(대표 황우여 장로) 등 5개 교계단체가 힘을 모아 동성에 문제에 대한 본격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대학가에 동성에 서클이 늘어나는 등 동성에 문화가 확산되고 차별금지법 입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조찬기도회와 의회선교연합(대표 김영진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등 5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서 '교계 지도자 초청 한국교회 당면 현안보고 및 기도회'를 갖고 '한국교계 교과서·동성에 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동성에 옹호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과 동성에 차별금지·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한국교회 현안 보고회 및 기도회를 열어 동성에 문제를 널리 알리고 다음 달 열리는 주요교단 총회에서 동성에 옹호 교과서 수정과 기독교학교 건학이념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위 상임대표에는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에는 황우여 김명규 전 용태 장로가 선임됐다. 동성에 교과서 대책본부장은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가, 동성에·동성혼 대책본부장은 김원평 부산대 교수가 맡았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각각 수정하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독교 학교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반환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데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길 교수는 "인권위는 2003년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를 제작·배포했고, 2006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국무총리에 건의했

예정통합 총회 앞두고 이색 헌의안 만발

핵·통일 등 시대적 변화 반영

다음 달 열리는 주요 교단 총회에 서는 자살과 원전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예정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의 목사) 헌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동노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과 관련, 교단 차원에서 신학·목회적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청원했다. 강원동노회장 박홍길 목사는 제안 설명에서 "자살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자살과 구원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 교계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뤄지기에 자살은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신학적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강원동노회는 또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핵에 대한 신학·성서적인 연구를 통해 교단 및 교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헌의안도 제출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헌의안도 눈에 띈다. 용천노회 등 2곳은 "총회 부서인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명칭을 '통일선교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용천노회장 김동부 목사는 "국가적으로도 통일부를 두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교단차원에서도 북한선교와 통일 이슈를 대비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예정통합교단은 1970년 제55회 총회에서 '북한선교회'를 설치한 이래 '북한선도대책위원회(1973년)', '남북한선교협력위원회(1991년)'에 이어 1996년 제81회 총회 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서울북노회장 문원순 목사는 찬송가에 애국가를 수록해달라고 청원했다. 문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며 "애국가를 찬송가에 수록하면 국가 기념주일에 애국가 교회를 필요할 때에 자유롭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헌의위에 올라온 동일안건 중 가장 많은 헌의안은 현행 '군·농어촌선교부'를 군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로 분리해달라는 안으로 총청노회와 진주노회, 포항노회 등 9개 노회가 제출했다. '목회대물림금지법안'도 서울노회를 비롯해 경기노회, 대전노회, 평양노회, 대구담양노회 등 7개 노회로부터 올라와 있다.

기성, 성결성 회복운동 본격 추진

"정직한 보고가 기본" 교회재정·교인수 보고 강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교단 소속 교회의 경성비(연간 헌금 총액) 및 세례교인 보고실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결성 회복 운동'의 일환이다. 기성은 성결성 회복을 위해서 '정직한 보고'가 기본이라고 보고 '정직 보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결성 회복은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

미다. 이 때문에 기성의 역대 총회장들은 성결성 회복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조일재 현 총회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성결성을 회복하겠다"고 천명한 뒤 이같은 선언이 구조로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감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기성은 먼저 2012년도 경성비와 세례 교인 통계를 감사해 허위보고가 의심되는 지방회와 교회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세례교인 300

명 이상인 교회 중 1인당 경성비가 턱없이 낮은 교회를 집중 감사한다. 1인당 평균 경성비 70여만원보다 턱없이 낮으면 교인 수를 부풀렸거나 총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줄이기 위해 경성비를 적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위는 또 경성비와 세례 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총회비 미납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우선 총회비를 미납한 13개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목회신학연구원과 함께 지방 신학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성은 '2·3·4 부흥운동'도 시작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

씩 성경 읽고 4시간씩 전도하자'는 운동이다. 조 총회장은 "2·3·4 부흥운동은 작은 교회의 자립과 부흥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목회하는 회비를 줄이기 위해 경성비를 적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성결성 회복 운동은 교단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3일 평신도 기관장들은 총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성결성 회복을 위한 정직 보고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조 총회장은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실천해 성결성 회복운동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WCC 김삼환 목사 사퇴 강력촉구 집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사탄의 회 WCC" 주장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산하 WCC대책위원회(위원장 지양철 목사)가 10월 30일부터 11월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한국총회 개최 반대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인다.

WCC대책위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심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한 WCC 부산총회 철회 및 김삼환 대 표회장 사퇴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보수교단협의회는 WCC총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김삼환 목사의 대외장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CC대책위는 그동안 김삼환 한국총회 상임준비위원장(대표회장)이 답임목사인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인근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WCC 한국총회 개최 철회와 김 목사의 대외장 사퇴, 교계 2선 퇴진을 요구해왔다.

WCC대책위는 김 목사에 대해 "지난 2월 '주의 몸된 교회'로서는 용납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초흔제라는 무당 관관을 총회 석상에서 자행하고서도 회개가 없는 WCC 총회를 부산으로 유치, 개최하는 것이 교회

목사로서 타당한 것인지',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어서 타 종교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포함, WCC의 문제점에 대한 7개항에 걸친 공개질의를 하면서 22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답변이 없을 경우 김 목사가 WCC와 같은 노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표했으니 답변이 없었다"면서 "김 목사는 성경의 정설에 반한 이설을 주장하고 역행하는 WCC를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단체로 옹호했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적인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도 못했다. 김 목사는 WCC 한국총회 개최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며 거짓을 미화, 옹호 선전해 한국 교회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WCC대책위는 9월 초 명성교회 근처에서 또 다시 집회를 여는 등 앞으로도 김 목사의 WCC한국총회 준비위 대표회장 사퇴와 교계 2선 퇴진, WCC한국총회 개최 철회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1만5000여 감리교 청년들 "110주년 부흥역사 다시 한번"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

평양대부흥운동의 불길을 당긴 하디 선교사의 회개 110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주최한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뜨거워 열기 속에 열렸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대회에는 1만 50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Promise(약속)' 'Presence(임재)' 'Participation(헌신)'이라고 파란색으로 쓴 흰색 반팔 티셔츠를 맞춰 입은 청년들은 4시간여 동안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다.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하나님께선 '바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기리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 7000인이 되어 한다"면서 대회를 시작했다.

'약속'을 주제로 한 1부에서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 눈으로 골리앗과 마주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임재'를 주제로 한 2부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국인을 무시했던 교만함을 회개한 하디 선교사처럼 진정한 성령을 사모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라며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헌신'을 주제로 한 3부에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하디 선교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기대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며 "복음을 지식

으로 알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인 '소망'에서 청년대회 단장 김정서 광림교회 목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민대 CCC 소속의 안병용(26)씨는 "하나님을 지극껏 깊이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다"며 "개인적 구원을 넘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임득균(24·부평감리교회)씨는 "다시 한 번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성도들과 한국CCC 등 대학생선교단체 회원들도 함께했다. 기감은 지난 1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 성회를 열어 5년여 간의 교단 내 갈등을 딛고 일어서 세 부흥을 이루자고 결의했다.

총신대 새 총장 선출 무산

총신대 새 총장 선출이 무산됐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뒤 다시 총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22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지만 새 총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들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정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총신대 교수와 목사가 후보로 거론됐지만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리자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추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p>■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p>	<p>■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p>
--	--

선교 펴기

영국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 영국에서 평안의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유럽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

저희 부부는 선교보고와 업무 협의를 위해 9월1일-24일 일시 귀국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예배, 기도회, 선교교 모임에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7기(2012/13) 암노스교회 개척학교 사역 작년 9월28일 제1기(2011/12) 졸업자 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신입생 5명이 3학기 강의를 20여명의 초빙강사들의 자비량 헌신으로 7월 11일 마감하였습니다.

제3기 학생모집 2013/14 신입생 모집 20명을 기도하면서 10명 지원자 면접을 가졌고 9월말까지 계속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지역교회와의 연합사역

브렌트우드 지역의 42교회와 단체들의 정기모임과 연합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INTERCEDE" 매월 정기 기도회로 BBC 교회당에서 암노스 주관 하에 모여 영국/유럽 국가와 교회, 재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합심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노스가 주관하는 지역교회 연합 사경회(INSPERATION 2013)가 5월3일부터 6일까지 필립 린 목사(말레시아 skyline Church 담임/현직의사)를 주강사로 열었습니다. 이 기간 이태리 밀란의 한인 성야가 5명이 특별선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제1회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영국교회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선교지 영국을 답사)에 9명(한국, 미국, 호주)이 참석하여 실시되었습니다. -"ON THE MOVE"는 지역 교회연합으로 7월10-13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햄버거를 나누며 전도를 실시하여 19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THE WAY FESTIVAL" 지역연합 전도집회(www.thewayfestival.com)가 "한 교회, 한 복음, 한 비전" 주제로 8월 23일부터 9월1일까지 TBC교회 뜰에 1500명 수용 텐트를 준비하여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김주경/양천근 선교사) 10만장의 홍보 전단지 배포하는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12명이 결신자를 얻었고 매일 은혜 중 진행합니다. -"24/7 기도회" 지역교회연합으로 시내 중심에 기도실을 마련하여 연속 기도를 영국/유럽 나라와 지역 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assion Conference" 전도를 위한 훈련을 2012년 2월 16일 교회연합으로 실시하였습니

다. 방문 전도 암노스 전도 정기훈련으로 매주 토요일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Hutton지역을 축조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사역 -한인교회, GMS 영국지부 방문 및 설교 -제28회 미주 크리스천신문 주간 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강의 및 답사 안내(2013/4/13-18) -결혼식 주례(안동국, 윤정근 선교사 장녀/스페인 산탄디 2013/6/28-30) -프랑스 한인교회와 사역자 방문, 선교보고와 협의(2013/7/26-31) -제18회 재영총신동문 가족수련회 특강(2011 영국 인구조사를 통해 본 선교지 영국, 2013/8/6-9)

- 기도 요청 1. 영국/유럽교회 부흥과 영적 개혁 2. 교세 감소를 반전할 전략과 실행 3. 적극적인 연합 전도 실시 4. 약화된 신학교와 무목교회 사역자 5.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의 활성화 6.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 개척운동 7. 사회에 기독교 영향 확대 8. 암노스의 교회 개척과 협력 사역의 확대 9. 순회선교사의 구체적인 사역 계획, 역할과 활동 확대

GMS 순회선교사 김주경, 양천근 선교사

케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11).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 위와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세월은 너무 빨라서 벌써 8월에 와 있습니다. 안식년을 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이곳 버팔로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케냐 소식 "알카에다"라는 테러집단의 테러 15년이 되던 날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대형 화재가 8월 7일 오전 4시 30분쯤 발생하여 국제선 도착장이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에 많이 손실된 상태입니다. 케냐 정부는 교통부 중심도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도착과 출발은 일단 8월 12시를 기해 국내선 3번 터미널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에 보수,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상적으로 공항이 운영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소식 마상가 신학교는 지난 5월 2013-2014년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학생들이 들어와 공부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정의를 훈련할 수 있었던 좋은 곳입니다. 아직도 교장은 공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로서는 교장에게 주는 월급을 주지 않고(선교사는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쓰고, 외국으로부터 학교를 위한 후원금을 모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력이 높고 외국인인 저를 교장으로 쓰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안식년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 교장을 맡기시려거든 파송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지만(케냐에서 20년을 사역하였지만 파송교회 없이 후원교회들의 후원으로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파송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 신학교 이사장으로 부터 국제전화를 받았는데 아직도 제가 교장직을 맡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소식 케냐에 도착하면 나이로비에서 며칠 일을 보고 마상가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강의와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재 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건축이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소식 가족은 모두 건강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지혜와 미혜는 21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은 이곳 버팔로에서 26일 비행기를 타고 케냐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아내와 둘이서만 가게 되어 조촐합니다. 신학교 20이커, 신

학교 바로 옆의 교회 110여개, 그리고 길 하나 건너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120여개에 교장 집 하나와 우리 집 밖에 없는 곳에 단 둘만이 있으니 너무 조용하고 외롭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보다 더 할 것을 사모합니다. 제 학년보다 나이가 어린 미혜가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밑에 의하면,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의 3%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은 지키기가 어렵지만 잘 신앙을 지키고 믿음생활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후에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쓰여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상가 신학교를 위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길러내도록, 신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 중인 유치원, 유치원 교사대학, 현지 인종교 훈련대학이 준비가 잘되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한 사역을 위한 4륜구동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게 될 인해, 지혜, 미혜를 위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들 에녹이를 위해 -가족의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 위와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시아(이음호), 이애경 드림니다. ▲이메일: isaiah.lee@aimint.net

방지일 칼럼 (5) "본대로 들은 대로" 목사의 번복 목사가 자기 의지를 굳게 하여 한번 작정했을 때는 번복해서 안된다. 신의에 관계됨은 물론 그 목회역사에 벌써 실패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교회시무를 자기 역량대로 안 되는지 또 그 필요성에 있어 사임하려면 심사숙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재가를 얻어 발표해야 한다. 더욱 정년이 안됐으나 후임을 위하여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퇴임한다 했다면 기여하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목사로서 번복은 있을 수 없다. 인정에 끌려서 대다수의 교인이 이렇게 아우성이나 하니 번복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지나보는 대로 한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남이 그 교회로나 자신으로나 적기가 되었다. 나도 그 인사에 동감했다. 다른 교회에 소개하여 다 결정되었다. 본 교회에도 당회원들은 양해가 되었다. 이사할 날까지 작정되었다. 갈 교회에선 목사를 되시켜 왔다. 트러에 짐까지 실었다. 그런데 여 교인들이 앙갚음에 차아래 아예 누웠다. 목사는 이렇게 만류하는데 이 양들을 버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능성하는 교인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모시려던 교회에선 목사의 의지가 그렇게 번복을 하더니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번복한 대로 전 교회에 남았다. 그러나 난이 못되어 떠나게 됨을 보았다. 자동차 바퀴의 바람이 빠진 목회회는 못한다. 많은 교인 상대에 어찌 잡는 교인이 없리요, 목사가 가신다니 시원하다고 보낸다면 그 모양새는 더욱 안됐다. 인정상 어렵기도 했지만 한번 의지를 정했었을 때는 그대로 하여야 한다. 눈물의 바다를 헤치고 떠남이 더 유익한 것이다.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떠날 때 떠난다고 보던 교회가 내가 떠남으로 분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번복하면 내 신의는 벌써 무색한 고로 단애 설 때 힘이 없어진다. 이런 실례는 너무 많이 본다. 내 일할 목장은 옮겨서 새롭게 함이 더 힘이 나게 되지만 인정에 못이겨 그 의지를 바꾸었을 때 누구도 알지 못하되 그 자신이 무력해짐을 자신이 느낄 것이다. 목회자는 인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격이란 이성적이면서 의지적에 정서를 가함이다. 정에 못이겨 의지를 꺾었을 때 격의 완전성을 상실함이라, 비 인격이라 하겠으니 목회에 힘이 날 수가 없다. 근자에 어떤 교회에 오래 목회하면서 좀 서로 싫증이 나는 듯 하니 나는 언제 은퇴하겠다는 공언을 한 교역자가 있었다. 건강도 좋고 은퇴하고 지낼 것을 생각하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년까지 있겠다고 번복하려는 눈치를 찬 교회는 아예 그 번복을 막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하게 됨도 보았다. 좀 장피한 일이다. 함부로 의지를 번복해서는 격의 손실이다. 무색하게 물러남보다 빛나게 물러나고 은퇴하시게 하는 게 교회나 목회자의 덕이 나타난다. 한 60여년 교회에서 내 생을 보낸 나로서 많이 지나보면서 목사는 번복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본고로 한 기록에 남겨둔다. 의지를 굳혀 하나님의 재가까지 받아서 그 의지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한 의지는 번복할 수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형편상 번복한다면 이는 안 된다. 정지하는 사람은 번복을 순바닥 뒤집듯 함을 본다. 얼마나 비천하게 여겨지는지 모른다.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 자사 자리를 위함이라 역시 비천함을 면치 못한다. 소위 민족의 지도자 운운하면서 그런 번복은 자라나는 학도들을 망치는 일이다. 그 책임을 언젠가 한번 묻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성직자로서 그런 유에 속한다면 이는 크게 실격이라 감히 번복하지 못한다. 번복한 후로는 뻔한 일인데 후고 후에 후회해도 벌써 늦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성직자로서 신의를 상실한다면 벌써 그 격은 잃은 것이다. 하수 없을 교회가 깨지지 않기 위한 미명도 붙여 본다. 그러나 내가 떠난다고 깨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있어 합일한다고 생각함은 그 주관일 뿐이다. 신의를 상실하는 번복은 있을 수 없다 함을 짚어본다. (1996년, 1권)

Grid of church announcements with headers lik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헌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서부교회', '나성제일교회' and others,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노숙인 사역

꿈을 찾고 만들어가는 곳
2011년 4월에 시작된 드림시티. 1층에서 시작된 사역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주간에 400-500명이 이용하고 매일 40-50명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드림시티에서 머무는 식구들을 위하여 식사 시설을 개선하고 1일 3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만 느껴졌던 서비스들... 이발, 세탁, 물품보관, 잡자리제공, 전화, 팩스, 컴퓨터(인터넷), 영화상영, 양방 및 한방진료, 증명사진, 급식, 미술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 관심과 함께 기도도, 그리고 물질로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올해 안에 노숙인과 불법외국인 체류자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진료소(의원)를 설립하고자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꿈을 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밝게 웃는 세상, 우리의 관심과 나눔을 통하여 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일 3식 제공
2011년 4월 세워지고 8월부터 24시간 오픈을 하며 밤에 잡자리를 이용하는 사람(10-20명)들에게 라면이나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매일 저녁밥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던 식사가 지난 6월부터는 잡자리를 이용하는 40-50명에게 매일 3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용산 푸드뱅크를 통하여 들어오는 음식과 인근 사역자들이 제공한 식재료들과 함께 필요한 일부 음식은 구입하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자외선소독기를 갖추고 냉장시설을 확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림시티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낮에는 400-500명, 야간에는 40-50명이 잡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잡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에는 드림시티를 방문하는 외부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130명 정도에게 빵과 음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리안스베이크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술지도
드림시티에선 수많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화, 팩스, 컴퓨터(인터넷), 세탁 물품보관, 영화상영, 증명사진촬영, 양방/한방무료진료, 이력서작성, 면도기와 칫솔, 이쑤시개, 면봉까지 제공합니다. 모두 무료로 노숙인들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위생 그리고 재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5월 계획했던 미술지도가 드디어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원 작가님께서 이 일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섯 명으로 시작한 미술지도...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려지면 더 많은 노숙인들이 그림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림 모임을 통하여 삶을 나누는 사람... 다양한 사람의 모임으로 시작한 이 모임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거리를 찾습니다
드림시티에 머무는 분들은 술을 먹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드림시티에 머무는 40-50명 중 반 이상은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있는 분들은 드림시티 내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실시했던 봉투작업 부업은 소득이 너무 적아 다른 부업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혹은 좋은 부업거리가 연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재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노숙인의 수는 14,000명 전국민대비 0.03%정도 조만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실제 노숙인 수는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늘어났는데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가 외면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숙인에 대한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거나, 굶기면 일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를 보입니다. 하지만

에 처한 이들을 돌보며 이 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소중하게 전하겠습니다.
늘 기도도, 관심으로, 물질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ww.dreamcity.or.kr
드림시티의 재정 및 운영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날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식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만 드림시티 재정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시티는 교회로 등록되어 정부의 후원 없이 어려운 분들을 향한 귀한 분들의 관심과 후원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사용하던 컴퓨터, 책이나 생활용품 및 옷, 신발, 가방 그리고 식품 등 모든 물품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물품이나 음식은 타 교회나 기관의 노숙인 급식 혹은 무료 급식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신당동에 위치한 예수마음교회(장학일 목사님) 그리고 인천의 그리스도의향기교회(유경하 목사님)의 노인 무료급식에 사용하도록 쌀 250키로와 라면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함께 물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연식 선교사 드림
이메일: plusup63@hotmail.com

구분	한국	미국
노숙인수	14,000명 (1만명당 3.5명)	3,000,000명 (인구1만명당 100명)
남녀분포	남 95.6% / 여 4.4%	남 70% / 여 30%
나이	평균 47세(40대36%)	평균 40세
만성노숙인	30% 정도	10-25%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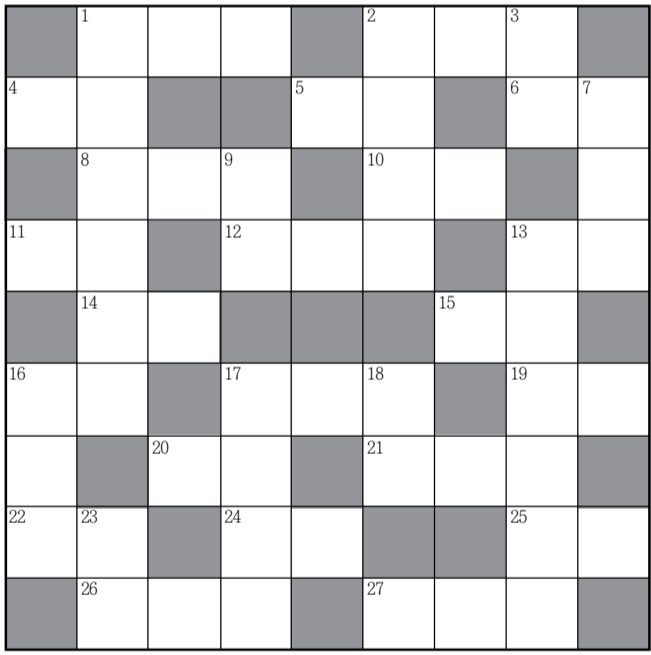
들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수리나 정비 등도 가능합니다.

노숙인 실태
많은 분들은 노숙인이라고 하면 게을러서 그렇다거나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드림시티에 머무는 대부분의 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에서 한번 실패를 겪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

그들을 방치할 경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범죄나 질병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사회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그들을 적정한 선에서 돌보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사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쟁에서 낙오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십자말 • Cross Word (8)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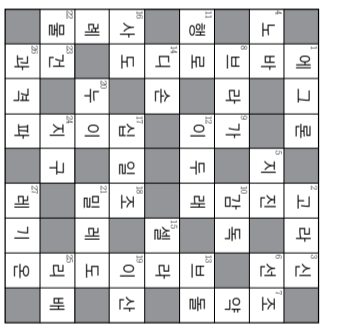
-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 14km에 위치(수13:3).
- 주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저희가 불신함으로 크게 책망하심(마11:21).
- 므나세의 자손(민32:42).
- 땅이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무서운 현상(왕상19:11).
- 핏줄을 이어받은 먼 조상(창46:34).
- 유대의 남방 드고아 근처에 있는 골짜기(대하20:26).
- 살피어 단속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출1:11).
-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신1:31).
- 갈릴리와 다메섹 사이에 있는 작은 도. 분봉왕 빌립이 치리했다(눅3:1).
-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인데 발람의 고향이다(민22:5).
- 세일의 다섯째 아들(대상1:38).
- '높인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시편에만도 70여회 사용됐다(시3:2).
- 예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신 열 두 제자(마10:2).
-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수입의 10분의1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일(민18:21).
- 떨어져 흩어짐. 남북 ○○가족 파위(사11:12).
- 남자의 여자 형제(창4:22).
-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 이곳에 기향해 에베소 장로를 청해 권면함(행20:17).

22.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창31:37).
24. 사람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눅21:35).
25. 기브아인인데 다윗의 30용사 중 잇대의 부친(삼하23:29).
26. 지나치게 격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 온건파의 반대.
27. 이탈리아 남단 시칠리아 섬에 있는 한 섬(행28:13).

<세로 푸는 열쇠>

1.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본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비용을 가지고 갔던 사람(빌4:18).
2.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고사성어).
3. 새롭고 산뜻함(시92:10).
7. 자질구레하고 둥근 돌. 돌자갈(애3:16).
9.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다윗의 물뿔에 맞아 죽자 그 군대가 이곳으로 도망침(삼상17:52).
13. 빌라도가 국사를 돌보던 관청의 뜰 이름(막15:16).
16.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선물(사1:23).
17. 이스라엘 열 두 아들들의 종족대로 갈라진 파(창49:28).
18. 몹시 뻑뻑함(시122:3).
23. 잘못이나 허물(대하33:19).

십자말 정답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v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지사 워싱턴DC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7. 사모의 영성 가꾸기(4)

사모의 기도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모와 기도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생활을 위해서는:

1.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릅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하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지 않아도 될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점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아버지가 떠돌아다니는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있나 하시면서 안타깝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모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의 특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하는 권세 누리야

들이라면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려움이 닥치게 되거나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하여 성도들이 사모를 괴롭히기도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떠나고 만 것처럼 충격을 받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아 심하면 불행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말로는 아버지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모들의 고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사모들의 아버지는 더 강하고 힘이 있어 모든 것을 헤쳐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사모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능동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에 의심이 생겨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니다. 13년 만에 다시 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처음 말씀이 나는 능동한 하나님이냐 하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창17:1)고 하십니다.

그 능동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전능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도 보통 사람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입니다. 그 분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소리를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고는 건널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사모들 중에는 각종 유형이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부름에 응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성장과정도 다르고 섬기는 대상도 다릅니다. 다 같은 목사 남편이지만 각각 상황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다릅니다. 한국초대교회 시절에 사모는 무조건 이래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형태도 다르고 사모들의 은사가 개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편목사들의 시야도 많이 넓어져서 사모를 교회 안에 가둬두지 않고 은사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목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모의 위치를 확립해주어 나름대로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현명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모들이 숨을 맘대로 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모들의 은사가 개발되어 활동하므로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모들의 약점이 드러나지만 어떤 기회를 타서 마귀는 엄습해옵니다. 내가 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도 잘났다고... 남편의 허물이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런 성도 하나 품지 못하면서 무슨 사모라고? 마귀는 실재없이 사모들의 기도 힘을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임박하에 조금이라도 오르내리거나 하면 그동안 그렇게도 담대하고 당당하던 사모의 자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낙약한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사모는 아니야 하면서 사방까지 내려놓게도 됩니다.

여기에 남편목사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해도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야" 하면서 힘을 도와주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 아부게 목사사모 좀 봐. 당신은 옆드려 기도나 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 탓만 하고 그래" 하는 남편이라면 당장 사모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또 사모들이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가 묻는다면 성

도들이 목사님을 향해 불평을 해올 때입니다. 고칠 수 없는 남편의 약점이 드러날 때 사모들은 남편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주일 전 토요일부터 남편에게 일러줍니다. "여보, 내일은 정말 조심하세요. 설교할 때 한쪽만 눈을 돌리자 마세요. 아부게 성도가 오후하고 있잖아요" 등등. 그러나 남편들은 조금은 흥내 내다가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때 사모들은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기 힘들어 합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성도들이 불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들의 결과를 바라본 후에 잘되면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힘이 생깁니다. 반면에 실수라도 하면 귀가 폭 넓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면서 아들의 권세는 말도 꺼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모들이 이 범주에서 사역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와 단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바로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아들은 아버지를 알긴 했지만 집을 나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한 일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 다시금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을 보고 싶을 때 봤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줄 착각했던 맏아들은 기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을 많이 하여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권세 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치르고 얻은 아들의 권세를 많이 누리고 사용하는 사모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모들을 세상이 감동할 수 없습니다. "아아! 행복한 사모들의 즐거움어..."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예수님의 약속2-너희가 알리라(요14:19-2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certain knowledge of Jesus Christ)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 즉 "나사렛 예수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은 좋은 스승, 친구, 이웃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만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롬1:40).

화 예수님의 약속3-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19-24)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완벽히 계시된(full revelation)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21).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체가 주는 감각을 통해서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각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황홀경에 빠져 예수님을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 예수님의 약속4-그와 함께 하리라(요14:19-24)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제자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23).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각 사람에 내주하시는(indwelling)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with)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51:11)라고 기도한 것은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

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함께(with) 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제자들 안에(in)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심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1-확실한 지식의 획득(요14:25-26)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할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잠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야 할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confused men).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가르침을 맡으셨고, 오순절 성령께서 감명을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사가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확실한 지식의 획득은 오직 교사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금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2-하나님의 가르침의 열망(요14:25-26)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셨다는 삼위의 하나님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빈곤한 제자들을 향해 미련하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친히 제자들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완벽한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토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3-기억케 하심(요14:25-26)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은 기억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기억케 하시는 사역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사33:11). 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오늘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최종으로 견인하신다는 진리들은 전혀 새로운 진리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억(rememberance)속으로 낡은 진리들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케 하십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967(교우실) VIA DEI QUINTILII 32-90 00175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937-6754-5 군포시 금포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0-7000, Fax: (02)490-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양육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영고광역시 북구 교민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홍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예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967(교우실) VIA DEI QUINTILII 32-9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 7:00 (4부) Tel: (82)32-440-9000, Fax: (82)32-440-9099 서울시 강릉구 명동3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622-3 (158-053)	새이엔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82)2-842-1968, Saver: (011)822-2-842-19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근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볼보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Saver: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대교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Saver: (011)82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5,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9:00 Tel: (82)2-786-6579, Saver: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안양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군 기흥구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예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양곡동 415-1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양육기도회: 오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외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009-1(140-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양육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대동 448-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렘바이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령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 수, 금) 금요양육기도회: 평일 저녁 8:00(수, 금) 금요양육: 7:30 금요양육: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u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Biterito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U-RO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주일)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저녁 7:00 7:15주말기도회: 야상 7:40 수, 목, 금, 토: 8:00(예일)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페니시 날) E-mail: han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비극의 땅 시리아

1)정부군의 민간인 대상 화학무기 공격

CNN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 측은 21일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정부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사망한 어린이들 (Reuters)

구타 지역에 유독 화학물질 로켓 공격을 가해 13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1998년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쿠르드족 학살 이후, 최악의 화학 무기 사용 실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누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미국 등 서방이 넓지 말아야 할 금지선으로 규정된 화학무기 사용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시리아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파올로 달오글리오(사진: Reuters)

2)사라진 예수회 사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반대해 왔던 달오글리오 신부가 지난 7월 29일 라카에서 실종됐다. 그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반군 그룹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달오글리오 신부는 약 30년간 시리아를 섬겨오다 2012년 추방됐지만 국경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지난 달 터키로부터 시리아로 재입국했다. 그는 특별히 쿠르드족과 아랍인들의 종교적, 인종적 화해를 주창해왔다. 또한 종파 전쟁

을 부추기는 아사드 대통령을 폭력배로 부르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 두 명의 성직자가 실종된 적이 있어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지 가늠해 보게 된다. UN도 시리아의 기독교계 주민들의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는 2011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기독교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납치된 기독교계 주민들의 숫자도 수백명에 달한다.

이집트

1)이슬람주의자들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집트 교회

현재 무르시의 무슬림 형제단이 이끄는 이슬람주의자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모인 캠프 두 곳을 공격한 이후 발생한 양측의 유혈 충돌 직후, 이집트 기독교도인 콥틱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무슬림 형제단의 보복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군부의 무르시 축출 지지 등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박과 함께 약 60건 가량의 방화를 저질렀다. (사진: 공격당한 학교와 교회/출처:AP)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이 다수인 이집트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한층 대담해졌고 공격 또한 증가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무르시 대통령이 물러난 7월3일 이래로 계속 공격을 받아왔다.

2)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체포와 무바라크 석방 결정



정부의 지도부 체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인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 (Voice of America)

이집트 과도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대변인과 이슬람교 성직자들을 체포했다. 이집트 당국은 무슬림형제단의 정신적 지도자 무함마드 바디에(70) 의장을 20



석방 후 군병원으로 옮겨지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 (USA today)

일 카이로 북부 나스르시티의 아파트에서 체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바디에 의장이 체포되자 무함마드 에자트 부의장을 임시 의장으로 지명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카이로 법원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법원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무바라크는 22일 석방되어 마야디 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연금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바라크 축출을 주도한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신자보호목적'이란 명분으로 성당 앞에 줄지어 늘어진 이집트 무슬림들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성당 앞을 진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진은 이집트의 한 성당 앞 풍경이다. 무슬림 남성들은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예배치던 성당의 파괴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예배의 자유 박탈과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일과 유사한 것이다.

해당 사진은 예수회 신부인 제임스 마틴이 촬영한 것이다. 그는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즉시 600번 이상 리트윗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유저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집트의 종교적 박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반무슬림 폭력저지 실패한 미얀마 정부

미얀마의 개혁 정부가 종교 폭동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6월 라킨주에서 일어난 소수 민족인 무슬림 로힝야족과 불교도들 사이에서의 충돌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다. 영국에 근거지를 둔 인권 단체 PHR에 따르면 폭동을 일



한 소방대원이 종교 폭동으로 일어난 불을 끄고 있다(AFP)

으킨 불교도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로힝야족 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 있는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실제 반무슬림 대상의 폭력은 28개 도시에서 일어났다. 현재 무슬림들은 미얀마 내에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BBC는 지난 4월 메이크틸라에서 불교도인 경찰이 무슬림 남자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을 입수, 공개하기도 했다.

만달레이 지역의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는 전체 인구의 4-10% 가량 되는 무슬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실패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던 데인세인(Thein Sein)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제까지의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엄중 처벌의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한 자녀 정책" 실패가 낳은 재앙

중국에서 최근 '한 자녀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서의 관계자가 정책 완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듯 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발언은 한 자녀 정책이 가지는 역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성비 불균형이다. 한 자녀 정책으로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면서 중국은 인구 그래프가 달라졌다.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성인층에서 여성이 부족하다. 중국 농촌의 경우, 중국인 신부를 구할 수가 없어 북한으로부터 신부를 사오거나 납치해 온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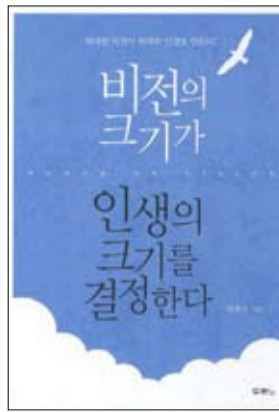
이제는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



남편감을 찾는 중국 여자(UCA News)

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구조에 있다.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니린(Ni Lin)의 로이터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은 키, 나이, 교육 정도, 연봉 등과 같은 조건에 있어 여자보다 나아야 한다. 이렇다보니 중국에 가서 남게 되는 C등급의 남성과 A등급의 여성은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채 남는 여성들을 가리켜 'shengnu'(生女)라고 부른다. 수도에 만 약 50만명으로 추산한다.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사안이 심각한 것 같다.

새 책 소개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한중수 목사(엘바인침례교회 담임)가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두란노)를 출간했다.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복음 중심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청년과 성도들을 향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비전이다'라고 전제하며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은 비전과 일치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비전과 헛된 꿈의 차이는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부제 달아

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까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 그 헛된 보이던 꿈은 비전이 된다. 하지만 그 대가를 자기들 위해 지불하면 야망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지불해야만 비전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서는 총 202쪽으로 비전력 1. '비전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전력 2. '비전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전력 3. '비전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를 결정한다'로 나뉘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빈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석하라',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영안으로 보이는 비전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지혜자가 되라', '깨어진 자아를 통해 비전을 성취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진정한 비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라',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일하신다', '위대한 인생을 꿈꾸라', '성령을 받은 자는 미래를 꿈꾼다'의 제하 아래 비전을 품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며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본서에는 송자(명지학원 이사장),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의 추천의 글이 수록되었다. 저자 한중수牧사는 연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강사를 거쳐 1982년 도미, 포도원교회를 개척했다. 남침례교회남가주교회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엘바인침례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책 구입문의: (이성자 기자)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 안수
 - ①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 ②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 ①구약성경 ②신약성경 ③조직신학 ④교회사 ⑤헌법
- 2)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3)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 1) 제출 기간 : 2013년 9월 6일까지
- 2)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 3) 고시 장소 : 하워드존슨호텔(플러톤)

5. 기타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순복음 수호총회

총회장 이종한 목사

부총회장 김진규 목사 이용인 목사 김두경 목사(고시위원장겸직)

총무 석종규 목사